2018 호루라기상(공익제보 부문)

- 검찰 내 성추행 제보자 서지현 검사



○ 수상자 소감

얼마전 호루라기재단에서 진행하신 팟캐스트를 본 스쿨미투 학생들이 말했습니다. “여러 따가운 시선으로 인해 움츠러들고, 고통스러웠는데, 우리가 ‘공익제보자’ 이고,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을 하였다’ 고 생각하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든다.” 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이야기 하는 것, 공익제보자가 조직이나 사회의 부패를 이야기 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고통 받아야 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멋진 일’ 이라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데도 피해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책을 보았습니다. 성인의 29%가 에이즈 감염인으로 성인 평균 기대수명이 61살 정도였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011년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에게 무상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후, 한 시골지역을 조사한 결과 7년 만에 기대수명이 12년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묻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에이즈 때문에 죽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에이즈 치료약을 공공자금으로 제공하지 못했던 공동체로 인해 죽었던 것일까요?

저 역시 묻고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익제보자들은 성폭력 피해나 공익제보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성폭력과 부정부패를 방치하고, 범죄자들을 두둔하고, 오히려 피해자와 공익제보자들을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고통을 받으며 죽어갔던 것일까요?

피해자들을, 부패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입을 열 수 없게 만든 것은 그들의 두려움과 나약함 때문일까요? 아니면 피해사실을, 진실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그들을 배신자, 꽃뱀, 창녀라 부르며 의심하고 비난하여온 이 공동체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처음 입을 열기로 결심했을 때, 더 이상 검사도, 변호사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평생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삶도 감수하겠다는, 사회적 자살을 하는 그런 비장한 각오를 하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굳은 각오로 입을 열었지만, 뼈가 시리고 영혼이 떨리도록 추운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정의를 말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비정상적인 시대는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들의, 공익제보자들의 입을 틀어막아온 잔인한 공동체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이 공동체의 변화를 누구보다 소망하며 공익제보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호루라기재단에서 주시는 이 상은 더욱 더 굳건히 더욱 더 강건하게 피해자들을 공익제보자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이 잔인한 공동체를 그냥 두고 보고만 있지는 않으시겠다는 단호한 의지이자 뜨거운 다짐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